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평안(평안)! 이곳 기독교인 사이에 주고받는 인사입니다.

대만에 와서 저희가 받은 인상은 국민들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의를 중시하고 친절하며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방역도 매우 성공적이며 일상이 거의 정상화를 되찾고 있습니다. 교회나 학교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모두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착을 완전히 끝내고 무엇보다 성령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로 시작한 대만 사역은 기도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음성을 부부가 함께 듣고 무릎 꿇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에서 대만 선교사로

저희는 지금 대만에 새롭게 적응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볼 때는 대만 사람도 중국인으로 생각하지만 대만인의 정서는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타이완은 중국이 아니라 합니다. 중국에서 언어를 배우고 오랫동안 중국 문화를 접한 저희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나 중국적인 표현을 고치느라 주의하고 있습니다. 25년전 중국 상하이로 들어갔을 때 쑤 도시가 건설현장처럼 빌딩이 동시에 올라가는 것을 목도했는데 이번에는 격변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대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10월 10일 대만 건국일에는 코로나가 무색하게 성대하게 축하행사를 하며 대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곳 역시 친중, 반중간 갈등과 분열로 보이지 않는 벽들을 치고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다시 새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6개월간은 이곳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데에 중점을 두고 중국 선교사만이 아니라 '중국을 품는 대만 선교사'가 되고자 합니다. 중국인 대만인의 구별 없이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삶을 간절히 추구하며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자 또다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대만 교회 지도자들과의 교류

기도의 열매로 이곳 교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는 비밀리에 이뤄졌던 반면, 대만은 완전히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장점이 많지만,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 더욱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분한분 교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만장로교회 목사님들과의 교제를 통해 이곳의 필요를 듣고 직접 현장에도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타이베이 제남 장로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교회의 두분 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좋은 협력관계로 발전할 것을 믿고 기대하게 하십니다. 또한 30여년전에 견습선교사로 저를 초청해 주신 타이베이 한국교회 김달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도 반가운 해후를 하였습니다.



대만장로교회 목사님들과 교제



김달훈 원로 목사님 부부



원주민교회 그리스도인 자매

산지족 원주민 부락 방문

이번 주에는 대만 원주민 중 타알(泰雅)족이 사는 부락을 방문하였습니다. 대만의 인구는 2400만명이고, 크게 셋으로 구분되는데 원래 살고 있던 남방계 원주민 2%, 명청시기 중국 복건성과 광둥에서 건너온 대만인(민난인)이 가장 많은 84%, 세번째로 국민당 정부가 국공내전에서 패할 때 건너온 사람들(14%)로 구분됩니다. 원래 대만 땅의 주인이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 소수가 되고 약자가 되어 주로 산지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원주민입니다.

약16개의 원주민 중 타알족은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살고 있는데 꼬불꼬불 산길을 작은 승용차로 왕복 400km를 달려가는 길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자칫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좁은 산길을 오르내리며 이런 척박한 곳에 사는 원주민의 삶이 어떨지를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그 심정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풍경과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갔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여자 장로님 가족이 운영하는 민박집이었습니다. 3대에 걸쳐서 그들 민족의 혼을 담은 예술가 집안이었는데 생계를 꾸려가며 전통문화를 보존하려 노력하는 모습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에는 조상들의 이름을 덧붙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20명 조상의 이름이 합쳐진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손님을 정성껏 접대하는 순박한 원주민 그리스도인과의 짧은 교제지만 눈과 눈에, 맞잡은 손과 손에 뜨거운 사랑이 전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다시 그곳에서 집회를 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소망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부락 입구에 세워진 조각



원주민 조각가의 작품(상)
그의아들(하,오른쪽 두번째)

두번째 방문한 곳은 쓰린 교회라는 타알 족 장로교회였는데 11월 네째 주일에 드리는 감사 주일 준비로 목사님이 사냥을 해서 잡은 야생 동물을 교인들이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에게 고기를 먹이기 위해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모습이 사뭇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정글도 아닌 대만에서... 젊은 목사님 부부가 친환경 농장으로 교인들의 생계를 담당하느라 구슬땀을 흘리며 목양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며 감동과 감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편하게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농사지으며 교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삶,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지금도 조용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쓰린교회의 친환경 농장



감사절에 쓸 고기를 손질하는 교인



쓰린교회 목사 부부(왼쪽)

도움이 필요한 원주민 교회와 농촌 교회들

원주민 교회와 농촌 교회에서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미술을 지도하신다는 그리스도인 조각가(천선생)를 따라 그분이 수업하는 교회 두 곳을 참관하였습니다. 선생님을 구할 수 없는 그 먼곳까지 1시간의 수업을 위해 하루를 온전히 쏟는 봉사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며 저희도 힘껏 응원하였습니다. 방과후 교실은 교회에서 전도목적으로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교 이외에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은 교회에 오기를 즐거워하며 저녁밥까지 교회에서 먹고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교육과 복지를 선도하는 교회를 보며 옛날 한국 교회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65년의 역사를 지녔다는 그 교회는 20여명의 노인들만 명맥을 유지하다가 지금의 천 목사님이 오신 후에 낡은 건물을 보수, 확장하고 눈물과 사랑으로 지역 주민들을 보듬어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서 찬양과 기도를 인도했더니 큰 위로를 받고 우리가 그곳으로 이사 와서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저희 부부도 그 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원주민 교회 방과후 미술시간



65년 역사를 가진 타이안 교회 본당



타이안 교회 천 목사님과 기도

기도제목

1. 대학 캠퍼스 기독교 동아리 지도자들을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거주하는 산샤의 타이베이 대학을 거의 날마다 돌면서 기도를 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기에 저녁에도 운동을 하거나 응원 연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기독교 동아리가 미약하나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의 간사와 지도교수를 소개받아서 다음 달에 첫 미팅이 시작되는데 이들을 통해 학생 선교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원주민, 농촌 교회 사역자들을 세우며 협력할 수 있도록

이번 방문을 통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믿음으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귀한 목양자들과 교제가 이뤄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지역에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저희 부부가 앞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원주민/농촌 교회 사역자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020. 10.23. 타이완에서, 황창연, 오순영 선교사 올림